

특별기고

그때 그 시절...내 고향 8월에 대한 회상



정정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나면 당초 계획했던 일일 계획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처음 2-3일은 하루 해가 제법 충실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여름방학 남은 20일을 소진하는데 탄력이 불기 시작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할 시발점이 8월 초순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여름방학 숙제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잔디 씨 채집이었다. 피야벌 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동묘지나 저수지 뚝방에 용기종이 모여앉아 까만 씨가 달려있는 잔디들을 두 손가락으로 짚아 훑어내려 양은 도시락에 모아두었다가 저녁이면 좀 도리쌀 모으는 낭 대두병에 모아 붓고 한 손 꼽씩 올라가는 재미로 한여름을 보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많던 잔디 씨는 과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할 뿐이다.

한여름이 깊어지면서 옥수수대는 하늘을 찌르고 매미소리 우렁할 때쯤이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작은 어머니를 앞세우고

탕사발 골로 찜질을 가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저수지와 계울 물에서 첨방대던 나에게도 할머니를 따라 해수욕장을 가는 일은 설렘과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옥수수과 햇구마도 삶고 잔뜩밥도 준비해 갖지만 합법적으로 아이스 계끼를 사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바닷물의 염도 때문인지 민물보다 몸이 더 가벼움을 느꼈고, 더 멀리 수영할 수 있었다, 고무 튜브에 몸을 끼우고 울렁거리는 파도에 몸을 맞으면 한없는 밀려오는 즐거움이 지금도 예구리 한쪽에선 꾸물거린 것 같다.

여름날 소중한 추억들

한 시간에 한 대씩 오가는 버스는 읍내서부터 만석을 넘어 정원에 두 배 가득실고 오는 관계로 우리는 처음부터 버스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왕복 삼 십리 길을 걸어서 다녔다. 가는 길은 설렘으로 발걸음이 가볍지만 오는 길은 왜 그리 멀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여름에는 오후 서너 시가 되어도 피야벌이고 비포장도로를 걷다보면 가끔씩 지나가는 차량들과 흙먼지를 피하려는 발길로 몸을 피했다 되돌리기를 서너 번, 길가에 나무그늘이라도 찾아다니며 어쩌다 서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당나귀 꼬리마냥 성글고 소소해서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할머니가 탕사발을 다녀오신 날이면 어머니는 씨앗담을 잡아서 백숙을 끓였고, 큰 두레박상에 둘러앉은 온 식구는 다들 한

그릇씩 차지하고도 남았다. 요즘 들어 북날에 삼계탕 한 그릇을 맞이하면 옛날 생각이 나서 한 마리를 혼자 다 먹는다하는 것이 아직도 미안하고 과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

말양출신 오규원 시인의 '여름에는 저녁을'이란 시가 정겹다.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마당위에는 멍석을 / 멍석위에 환한 달빛 / 달빛을 깔고 / 저녁을 먹는다./ 마늘도 달빛에 잠기고 / 밥상도 달빛에 잠기고 / 여름에는 저녁을 / 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 / 가득 찬 달빛 / 아! 달빛을 먹는다.

구례출신 이시영 시인의 어린 시절 여름날은 어땠을까? 그의 시 '여름'이다.

은어가 익는 철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수박이 익는 철이었다./ 통통하게 알을 뺀 심장강 은어들/ 더운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찬물을 찾아 상류로, 상류로 은빛 등을 파닥이며/ 거슬러 오를 때였다./ 그러면 거기 간전면 동방천 아이들이나/ 마산면 냉천리 아이들은 메기 입을 한 채/ 바깥을 들고 여울에 걸터앉아/ 한나절이던 수 백 마리 알맹은 어어들/ 생으로 훑어가고 하였으니./ 그런 밤이면 더운 우리 온 몸에서도 마구 수박내가 나고/우리로 하늘의 어딘가를 향해 은하수처럼/ 끝없이 하얗게 거슬러 오르는 꿈을 꾸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여름이면 저녁을 마당에서 먹었고, 외산에서, 멍석에서 모두들 하늘보고 누워서 누구 배꼽이 더 높은

지 자랑 내기를 하다가 권유와 직녀의 오작고 전설로 애기꽃을 피우고, 둥근 보름달 속에서 딱박아 찢는 토끼를 찾아보려 애썼다. 북두칠성을 찾아가면서 흑시나 집을 잃으면 저 별보고 찾아오리라 마음속으로 다짐도 했었다. 그러다 평상에서 조금 더 고개를 뒤로 젖히면 평소 보지 못했던 환상의 세상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던 경험들 있을 것이다. 그것은 평소 서서만 봐 왔던 것들을 뒤집어보니 대문도, 마당도, 외양간도 심히 처음 보는 광경이라 황홀하고, 신기했던 기억들은 나만의 추억일지 모르겠다.

아날로그 휴가 떠나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즐거움 즉, 인생삼락(人生三樂)을 찾았다면 그 하나는 "어렸을 적 노닐던 곳을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보는 것" 다른 하나는 "곤공했을 때 지나온 곳을 상공하여 다시 찾아보는 것" 마지막 즐거움은 "어릴 적 함께 노닐던 고향산천을 그때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밤새도록 술(차)마시며 애기꽃을 피우느라" 이라고 했다.

지금에 와서 밤새도록 모닥불 피워놓고 부채질하며 모기 쫓아주던 할머님도, 모두들 공평하고, 귀히 여기던 어머니의 두레밥상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올 여름 휴가는 꼭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 조금은 불편했지만 행복했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아날로그 식 휴가를 보내고 싶다.

기고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로 화재 안전 책임진다



좌상두

화정119안전센터장

우리네 전통시장은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장소다. 대인관계가 소원해진 현대사회이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호흡과 정성이 듬뿍 느껴지는 곳이다. 많은 이들이 모이고 교류하고, 정성껏 준비한 수확물과 물품을 나누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지역으로서 각별한 관리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5년간(2012~2016년) 총 386건이 발생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화재원인은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8%(184건)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부주의(26%), 기계적 요인(10%), 방화(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는 밀집된 상가로 인해 연소를 급격히 확대시키고, 소방통로에 적재된 물건들이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상황에 대해 잘 대처한 사례가 있다.

바로 작년 8월 서구 양동시장 빈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예다. 화재가 발생한 순간 인근 점포 상인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시장 내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발화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그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또 지난 3월 동구 대인시장 화재에서도 인근 상인들이 시장 내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8대로 초기 진압을 시도해 자칫 하면 인근 점포로 화재가 확산될 뻔한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듯 화재 발생 직후라면 적극적인 소화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물적 요소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내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광주소방본부는 전통시장 24곳에 화재 초기 진압용으로 '보이는 소화기' 1,223개를 설치, 운영 중이다.

'보이는 소화기'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말소화기로 소화기 부차 높이를 개선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증진시켜 누구나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대형 판매시설이나 시장 등 주요 통행로에 안 내문과 함께 설치한 소화기를 말한다. 흔한 소화기지만 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

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되는 만능 소화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만큼이나 관리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분말소화기는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분말이 멎지 않게 하고, 수시로 압력계 이치를 점검해야 한다. 또 소화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보이는 소화기'가 훼손 또는 도난으로 인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의 규모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점포 수와 상인들이 많아 상인회 등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소화기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전통시장 대부분이 그렇듯 시설이 노후하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한 만큼 형식적인 관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는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들을 쳐고 운행했으면 한다.

수많은 계획 수립 속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어렵지 않은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꼭 운전 중 전조등을 켜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

/여수경찰서 분산파출소 진병진

광주 친환경차 클러스터 차질 없어야

민선7기 광주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사업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의 모체 격인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협약 파트너인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부품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1월 위탁조립공장 설립 투자협약서에 현대차는 친환경차에 해당하는 '차종의 파생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기에서 파생모델이 친환경차 부품공장 건립을 의미한다. 광주완성차 공장이 소형SUV 내연기관차로 출발해 향후 마태형 친환경차 생산공장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 친환경차 부품공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현대코비스가 울산형일자리모텔에 전기차 부품공장 건립을 발표한 것이다. 3,300억원 을 들여 울산 이화산업단지에 연면적 6

만2,060㎡(1만8,773평) 규모의 전기차 부품 전용공장 건립이 그것이다. 문제는 울산형일자리 모델이 당초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와 연계해 계획 중인 친환경차 자동차 부품공장 유치와 겹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대차의 약속 파기가 아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는 처음엔 경형 SUV로 시작하지만 향후 친환경차 등 파생모델을 염두에 두고 공장도 유연하게 설계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 설립도 안된 상황에서 부품공장이 들어서는 구조는 아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코비스가 울산형일자리 모델에 대규모 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짓기로 함에 따라 광주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난관을 격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시험문제 유출' 다른 학교는 없는가

특정 학생들만을 위한 모고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는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파장이 광주교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A고교는 지난 1학기 3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 중 5문제를 기숙사 동아리 학생들에게 배부된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했다. 또 지난해 1학년 수학 시험에서는 특정 교재에서 8문항, '도야 논술 교실'에 제공된 유인물에서 1문항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 학교는 모든 교육과정을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며, 사립상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학원처럼 운영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

3학년 모두를 성적순 우열만에 편성하고, 기숙사생은 성적순으로 선발했으며, 기숙사생은 과목별 분과 후 학교, 자율동아리, 토요 논술 교실 등 특별 교육 기회를 부여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제한한 정도도 드러났다. 다른 일 반계 고교에서는 소수만 선택하는 물리과 II를 전체 학생이 이수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내신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 점수를 무시하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성적 우수 학생을 대학에 단순 추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장 등 54명을 징계·행정처분 요청하고 학교를 중징계한 대상학교도 지정 향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학교현장이 입학성적만을 위해 불법·불공정이 판을 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차체에 광주·전남 전체 고교를 조사해 유 사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클럽 붕괴 사고 반복대선 안돼

기지수첩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가 인재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다중이용시설 방재 규정과 시설 안전 법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건물주·관리인·업주가 재난과 관련한 '자가 점검(1~2년 주기)'만 하고, 결과를 해당 구청에 통보만 하기 때문에 검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 진단·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클럽 시설 면적에 따라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위탁 점검만 하고 있다. 무단 증축 등 건축 관련 점검도 안전진단업체에 맡겨 2년에 한 번꼴로 해당 구청에 제출하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클럽의 경우도 지난해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특별 점검을 실시했지만, 클럽 복층 구조물의 안전성과 불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서구청은 지난달 클럽에서 붕괴 사고가 나기 전까지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다. 건축 관련 자체 점검 결과만 제출받고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건축법 35조에 따라 건축물 안전·유지·관리의 1차적 책임과 보고 의무



김종찬
사회부 기자

는 건물주와 업주에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각종 제재 권한을 가진 해당 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다.

다시는 이 같은 참혹한 사고를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재난 관련 법규 사각지대 개선과 행정·소방당국의 재난 점검 전담 부서 마련 및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다중시설 수천 곳을 점검하는 행정·소방당국 담당부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문인력 충원이 급선무다.

국회는 지난 5월부터 계류 중인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도록 규정된 소방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social services.

Table with 2 columns: 1989년 6월 29일 창간 and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